



이 임 사

고려대학교 화학과 진 정 일

지난 1997년은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잊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자성의 회한을 함께 가져다 준 한해였습니다. 소위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 남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분석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동안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베리아 한파와 함께 밀어닥친 IMF사태는 우리나라 전체를 한 순간에 신음의 구덩이로 몰아 넣었습니다. 정치인들을 탓하고, 대기업 소유주들을 비난하고, 금융계를 손가락질하며 하는 수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허리 띠 조르기 연습(?)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속에 파묻혀 버려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몸을 움츠린 채 숨어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점점 짙어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벌써 공업화의 기치아래 살아온 지 30여년. 세계 11대 교역국이 되어 선진국 대열 진입의 꿈에 부풀어 있을 때 항상 불안과 초조가 엄습해 오곤 했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과학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어떻게 경쟁에서 살아남는 담.....'. 말이 1만 달러 국민이라지만 우리 국민의 의식이나 우리 기술 현실은 5천 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세계를 돌아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게 되는 것을.....,'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려곤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 학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몇 가지 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광덕 전무이사와의 끝에 일을 벌이기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학회를 운영하자고 합의를 보았으며, 그렇게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후성 차기 회장이 편집 위원장으로 고생한 덕에 Korea Polymer Journal을 년 2회에서 4회로 중간할 수 있었고, 고려대학교의 김우년 회원과 조선대학교의 조병욱 회원 덕분에 춘·추계 총회도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매년 그렇듯이 특별 회비와 광고라는 방법으로 학회를 도와 준 후원사와 기업들의 도움에 대한 고마움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회원들의 열성에 찬 학회 참여야말로 우리 학회가 생동감을 잃지 않고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김정엽, 정진철, 김성철 회원의 노력과 헌신이 PPC-5의 성공적 개최를 가능케 하였으며, 김우식 회원은 한·중 고분자 학술대회를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이 같은 국제행사 개최는 우리 학회 및 회원들의 능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바입니다. 매년 개최하던 산학 협동 관련행사도 차질 없이 치러냈으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뉘 두리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과학기술 현실에 학회가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는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IMF한파를 훈풍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세계를 선도할 과학과 기술이 우리 회원들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회가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한 일 없이 1년 동안 회장 노릇을 한 부끄러움을 회원 여러분의 아량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훌륭히 학회 살림을 이끌어난 안광덕 전무이사, 윤진산 총무이사과 간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회 운영과 발전에 여러 조언과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학회운명을 맡은 이후성 회장, 윤진산 전무이사, 김낙중 총무이사과 여러 간사들의 분투를 기원합니다.